

FAUST

Charles Gounod

파우스트

S e J o n g e e a s o 25 세 종 시 즌

서울시오페라단 <파우스트>
2025.4.10. - 4.13.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배역	4월 10일(목) 19:30 4월 12일(토) 17:00	4월 11일(금) 19:30 4월 13일(일) 17:00
파우스트	Ten. 김효중	Ten. 박승주
마르그리트	Sop. 손지혜	Sop. 황수미
메피스토펠레스	Bass Bar. 사무엘 윤	Bass 전태현
발랑탱	Bar. 이승왕	Bar. 김기훈
시에벨	C. Ten. 이동규	M. Sop. 정주연
마르트	M. Sop. 김주희	M. Sop. 정세라
바그너	Bass 최공석	
노년의 파우스트	배우 정동환	

- * 상기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프랑스로 공연되며, 한글과 영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 * 본 공연은 7세 이상(2018년 출생자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Greeting

인사말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 괴테의 문학과 구노의 음악이 만나 탄생한 걸작, 오페라 <파우스트>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의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1859년 프랑스에서 초연된 <파우스트>는 인간의 욕망과 구원이라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으로, 구노의 서정적인 선율과 극적인 드라마가 어우러져 오페라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끊임 없이 무대에 오르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 갈등과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우스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가 변화할 때마다 동시대적 해석을 더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파우스트>는 오페라에 연극을 더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색다른 무대로 관객 여러분을 만납니다. 특히,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오랜 시간 무대를 지켜온 배우 정동환이 노년의 파우스트로 등장하여, 한 인간의 내면을 더욱 섬세하고도 밀도 있게 그려냅니다. 이를 통해 오페라를 처음 관람하는 분들도 더욱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무대에 몰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오페라단은 시대와 함께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들을 캐스팅하며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이유는, 서울시오페라단이 그간 쌓아온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주신 서울시오페라단 박혜진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께서 <파우스트>의 강렬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잊지 못할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 특별한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기원합니다.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 호 상



Greeting

인사말

서울시오페라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공연, 오페라 <파우스트>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괴테의 문학적 걸작과 샤를 구노의 음악이 결합된 <파우스트>는 인간의 욕망과 구원의 갈등을 웅장한 서사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풀어낸 오페라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명작입니다.

이번 공연은 2015년 창단 30주년 기념 무대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작품으로, 더욱 깊어진 해석과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새로운 시도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파우스트>는 오페라와 연극을 융합한 ‘오프레이’ 형식을 일부 도입하여 관객 여러분께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부터 애호가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관객과 호흡하고자 하는 서울시오페라단의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연극 <파우스트>를 사랑하는 관객들에게는 ‘음악’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 주고, 오페라 애호가들에게는 연극적 요소가 더해진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서울시오페라단은 지난 40년간 한국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무대로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오페라단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박 혜 진



오페라 <파우스트> 소개

유윤종 |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19세기 프랑스 오페라라고 하면 주세페 베르디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오페라, 리하르트 바그너로 대변되는 독일 오페라에 비해 그 위상이 크지 않게 다가오기 쉽다. 그러나 이 시기 프랑스는 토마, 오베르, 마스네, 생상스를 비롯한 여러 오페라 거장을 보유했고 발레와 4~5개 막의 큰 규모를 가진 ‘그랑(大) 오페라’의 화려한 시대를 자랑했다. 로시니, 도니체티, 베르디를 비롯한 수많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가 파리에서 작품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황제였던 베르디가 1871년 <아이다>를 내놓은 뒤 1887년 <오텔로>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이나 새 작품을 내놓지 않자 마침내 프랑스 오페라들이 대대적으로 이탈리아 극장들을 점유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는 베르디의 소속사인 카사 리코르디가 서둘러 ‘베르디의 후계자’ 푸치니를 발굴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탈리아 오페라계가 느낀 이 위협감의 중심에 구노의 대표작 <파우스트>와 마스네의 오페라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당시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파우스트>는 19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 동안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로 꼽혔다.

베르디나 바그너보다 5년 늦게 1818년 파리에서 태어난 구노는 21세 때 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가장 유망한 예술가에게 주는 ‘로마 대상’을 수상한, 자기 세대의 대표 작곡가였다. 이전 수상자로는 앙브루아즈 토마가 있었으며 이후 비제, 마스네, 드뷔시 등이 이어받게 되는 영예다. 이 상의 특전으로 2년 동안 로마에서, 이후 1년 동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구노가 해외생활 중 탐독한 책은 혁명가 겸 정치인 라마르틴의 <명상시집>과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였다. 특히 유향 마지막 해를 빈, 베를린, 라이프치히에서 보내고 멘델스존과 교류하면서 그는 <파우스트>를 비롯한 독일 문화에 폭 빠졌다.

파리로 돌아온 구노가 얻은 별명은 ‘사제 구노’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신의 은총과 구원을 확신했으며 실제 사제가 될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가 이상으로 여긴 교회음악 어법은 16세기 작곡가 팔레스트리나를 모범으로 하는 이른바 ‘고전 스타일’이었다.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간명한 화음으로 순수하고 광명에 찬 영적 체험을 표현했다. 1855년 그가 작곡한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는 그의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구노의 면모는 한국과 관련된 자취를 남기기도 했다. 현종 5년인 1839년 앵베르 신부 등이 순교한 기해 박해를 기려 작곡한 성가 ‘무궁무진세에’가 그것이다. 이렇게 ‘은총’과 ‘영광’이 강조된 그의 음악적 색채는 어떤 면에서 프랑스 화가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1780~1867)의 장려한 회화 작품들을 연상하게 한다. 실제 20대 때의 구노를 스케치해 남기기도 한 앵그르는 그림에도 소질이 있던 구노에 대해 “미술에 정진했으면 미술 분야의 로마 대상을 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면들로 볼 때 19세기 유럽의 지식계를 강타한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1부 1808년, 2부 1832년)를 오페라로 형상화하기에 구노는 딱 맞췄다. 비록 괴테의 <파우스트>가 종교적 구원 외에 ‘개인의 노력과 분투를 통한 구원’이라는 인본주의적 관념을 더했지만 그런 구원도 신의 의지가 개입된 구원이라는 데는 다름이 없었다.

이 소재를 오페라화하기로 처음 제안한 사람은 작가 쥘 바르비에였다. 그는 유명 작가 미셸 카레가 괴테 파우스트 중 1부를 번안해 만든 희곡 <파우스트와 마르그리트>를 본 뒤 카레의 동의를 얻어 이를 오페라 리브레토로 각색하는 중이었다. 바르비에

독일 출신으로 프랑스 오페라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마이어베어에게 이 작품을 오페라로 만들 것을 먼저 제의했지만 마이어베어는 “괴테의 원작에 손을 대기 꺼려진다”며 이를 거절했다. 다음으로 만난 구노는 독일 체재 시절 탐닉했던 이 작품과 구원의 테마로 인해 깊은 흥미를 보였을 것이다. 그는 앞서 오페라 <사포>와 <피의 수녀>를 선보인 바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터였다. 그와 바르비에는 의기투합했고 카레도 대본 작업에 힘을 보탰지만 주된 작업은 바르비에에게 맡겨졌다.

구노와 바르비에는 프랑스 오페라 무대의 상징인 파리 오페라에 이 작품의 상연을 제안했다. 르 펠레티에 극장이 화재로 소실돼 1875년 가르니에 극장을 새로 건립하기 20여년 전이었다. 파리 오페라는 “스펙터클이 부족하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공연을 받아들인 곳은 파리 4대 오페라극장 중 하나인 ‘테아트르 리리크’였다. 이곳에는 레치타티보 대신 대사를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1859년 3월 여기서 초연된 구노의 파우스트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확신한 악보출판사 겸 공연제작사 슈당은 이 작품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대사를 레치타티보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1860년 스트라스부르 공연에서부터 새로운 악보로 공연됐고 슈당은 프랑스 전역 뿐 아니라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에서도 오페라 <파우스트>의 바람을 일으켰다. 1864년 런던 공연 때는 발랑탱 역을 맡은 바리톤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의견에 따라 발랑탱이 2막 군대에 가기

전에 부르는 아리아 ‘Avant de quitter ces lieux’가 추가됐다. 이 노래는 오늘날 오페라에서 인기를 얻을 뿐 아니라 갈라 콘서트와 성악콩쿠르에서도 사랑받는 아리아가 되었다.

1869년 이 오페라는 드디어 파리 오페라 무대에 올랐다. 처음 작품을 거절한 경영진은 결정을 후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펙터클이 부족하다”는 관점은 유효했고 그랑 오페라를 위해 발레가 필요했다. 5막 ‘발푸르기스의 밤’ 장면이 추가되어 관객은 20분 가량의 멋진 음악과 장면을 추가로 얻었고 이 작품은 ‘그랑 오페라’가 됐다.

이 작품은 파우스트 전설과 괴테 희곡의 고향인 독일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1861년 드레스덴 젤퍼오퍼가 이 작품을 처음 공연하면서 독일에서 이 오페라는 ‘마르가레테’로 불리게 됐다. 여주인공 이름인 마르그리트를 독일식으로 부른 것이다. 원작에서 여주인공 이름은 ‘그레첸’이다. 독일 여성 이름 마르가레테를 줄인 이름 ‘그레테’에 축소형 어미를 붙여 귀엽게 부른 애칭이다. 때문에 프랑스인이 이 독일 소재를 오페라로 만들어 성공시킨데 대한 독일인들의 불편한 기분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 작품에 앞서 작곡가 슈포어가 쓴 오페라 <파우스트>가 당시에도 종종 공연됐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한 이름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파우스트>는 초연 후 75년 만에 파리 오페라에서만 2000회 공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1875년 건립된 가르니에 극장에서 대뜸 ‘오페라’라고 하면 <파우스트>를 뜻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대인기였다. 훗날 푸치니의 광팬으로 알려지게 되는 비평가 조지 버나드 쇼는 1893년 쓴 글에서 “런던의 모든 비평가는 12년 중의 10년은 파우스트를

보는 데 보내야 한다. 메피스토펠레스의 붉은 코트를 너무 많이 봐서 시력이 망가질 지경”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오페라는 구노의 진정한 음악적 창조물”이라며 그 가치를 인정했다.

19세기보다는 그 인기가 얼마간 떨어졌지만 오늘날에도 오페라 <파우스트>가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소재에 대한 작곡가의 공감에 큰 역할을 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의 단순성과 비할 수는 없지만, 구노는 특히 마르그리트의 청순함과 신의 거룩한 의지를 묘사함에 있어서 간명한 화음진행을 위주로 한 ‘고전적 양식’을 가져왔다. 현의 잔잔한 화음과 호른 및 목관의 가만가만한 장식음에 기도하는 듯한 목소리 라인이 깔릴 때마다 청중은 종교인의 신앙과도 같은 간절함으로 주인공들에 몰입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그린 앵그르의 기념비적 대형 유화와도 같은 거룩함,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 5막의 3중창에서 바람같이 흐르는 현의 반주부는 거듭 높은 으뜸음의 조성으로조를 바꾸면서 탄원하는 듯한 절박함으로 음악을 몰아간다. 마침내 마르그리트가 구원을 받았을 때, 청중은 저주가 구원으로, 암흑이 빛으로 바뀌는 듯한 ‘변용’을 구노의 음악에서 경험한다.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테너 아리아 ‘정결한 집’에서 테너 솔로와 이중창을 부르듯 대화하는 바이올린 솔로, 합창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음역대를 요구하며 독일적 장엄미와는 사뭇 대비되는 ‘병사들의 합창’, 악마성의 묘사에 있어 무소르스키 ‘벼룩의 노래’와 함께 전설적 지위를 획득한 메피스토펠레스의 ‘금송아지의 노래’, 마르그리

트의 순수함과 설렘을 화려한 기교와 함께 손에 닿을 듯이 표현한 ‘보석의 노래’ 등 이 오페라는 수많은 독창성의 보석을 선보였고 이는 프랑스의 후배 작곡가들에게 일종의 전범이 되었다.

일례로, 훗날 최고 인기 프랑스 오페라의 영예를 빼앗아간 비제의 <카르멘>(1875) 3막에서 산속 밀수범들의 소굴을 찾아온 미카엘라의 아리아 전주가 울리는 순간부터 귀 밝은 관객은 <파우스트>에서 구노가 묘사한 마르그리트의 음악적 특징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비제가 의도한 위대한 선배 작곡가 구노의 오마주이며, 순수와 구원의 여성상인 마르그리트의 오마주에 다름아닌 것이다.

Production Credit

프로덕션 크레딧

예술감독 박혜진
지휘 이든
연출 엄숙정

음악코치 정호정
연습반주 정이와 박수호
안무 김성훈
조안무 백진주
조연출 한지현
조연출보 여지은 김진휘
무대디자인 신재희
의상디자인 김지영
조명디자인 김윤주
분장디자인 강대영
소품디자인 곽내영
영상디자인 장수호
무대감독 이민재
무대스태프 허한중 강대성 오창우 정윤호
정동균 전상건 서종민 이준혁
정회근

무대테크니션 조일경
의상감독 변미라 천지연
의상스태프 김현지 박규민 박은주 백송희
변은아 이서희 이하영 황창숙
조명프로그래머 장재원
조명팀장 박대현
조명운영스태프 신 희 정호진 홍태희 김병철
조명스태프 이경천 임건우 전수진 김단비
최인수 양상모 이해영 한병수
한마로 김남수

음향감독 조영진
음향스태프 문미연 김하늘
분장팀장 박경희
분장스태프 이수연 정유립 박연우 강혜연
박예린 김다희 라서운 강서연
윤서현 이상아 서혜윤 최민서
최수인

소품제작 박산나래 김경민 박지윤 문정우
소품진행 박산나래 김경민 김승준 장민석
영상프로덕션 BMM
영상오퍼레이터 이지훈
행대인 에디션 이여진, 김복만
무대제작 (주)폴굿(대표 홍지은)
대도구제작 (주)빛나(대표 홍지은)
의상제작 잉칸토(대표 신원선)
장신구제작 언더콘스트럭션스튜디오
(대표 박선영, 이유선)

영상제작 비엠엠(대표 김복만)
소품제작 살낭(대표 김나은)
오르간임차 아리아악기사(대표 한명철)
조명임차 (주)한다프로덕션(대표 한소영)
음향임차 (주)서울음향(대표 최기선)
전식임차 올벤티(대표 남기상)
영상임차 프라임미디어(대표 박준성)
제작PD 류성광
홍보마케팅PD 신기루
매니저 김 솔 배연준 이승기
디자인편집 (주)프레인글로벌 바이엔디자인
대본번역 임재일
자막오퍼레이터 홍진선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공연제작2팀

팀장 김아림

팀원 채준식 이지향 이현주 채수경
신기루 류성광 김보름 이혜민
박선미

공연장운영팀

팀장 김지민

팀원 강보경 최병훈 이정연 임아라
강민재 김지성 구지휴 최민주
이연서 차주윤 김지연 유혜리

공연DX팀

팀장 김여향

팀원 강봉진 조계성 배우진 김예지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진푸름 서경은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김화영

팀원 김석경 윤문성 손귀영 한채현
이재효 황정연

무대기술팀

팀장 김수현

책임안전관리자 이종덕

무대감독 이민재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 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철 김상두 서민원 김 정
박정길 전해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향 김우람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김경민 채소영 남윤수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명 노준식 김학철 조현권 김 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김태진

영상 배준호 한완주 장인표 류병현

의상소품 변미라 천지연 곽내영

행정 민제희

